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를 바로잡는다 1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2372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잘못된 교리는 장벽이다.....	4
8814 오류를 가려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5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	7
4069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7
4541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8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10
6710 잘못 된 가르침의 악한 영향력.....	10
8035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11
8296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12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의문.....	15
8858 아주 큰 오류의 수정 (루시퍼의 타락).....	15
8859 계시 번호 8858 에서 계속: 큰 오류의 수정.....	16
8923 하나님이 큰 오류를 수정한다.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오류.....	18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대해.....	20
5389 삼위 일체가 오류가 됨.....	20
7117 삼위일체의 문제.....	21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22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	24
6485 예수의 존재를 믿으라.....	24
7250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25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28
8282 거만함의 위험성.....	28
8756 예수의 몸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입자이다.....	29
8751 육신을 입은 예수에 관한 오류에 대한 반박.....	32
8264 예수가 육신을 입은 주제에 대한 질문.....	33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일.....	36
3277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36
572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7
8731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설명.....	39
예정론의 오류.....	41
2034 예정론의 오류.....	41

6757 예정설. 다양한 은혜의 분량.....	42
7006 빌립보서. 예정론의 오류.....	43
우연에 대한 오류.....	45
2117 하나님의 섭리. 잘못된 의지.....	45
2441 하나님이 정한 삶의 길. 자유의지. 행동과 결과.....	46
7162 모든 일어나는 일이 혼이 완성에 이르게 해야 한다.....	46
8477 우연은 없다. 어떤 일도 아무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48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일.....	50
6482 종말에 대해.....	50
7705 거짓 선지자.....	52
8345 새로운 구원의 시대.....	53
8572 하나님은 잘못 된 가르침을 수정한다.....	54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잘못된 교리는 장벽이다.

B.D. No. 2372

1942년 6월 17일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간의 편에서 그에게 전해진,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부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어떤 자유가 없이 지낸다. 그런 가르침이 그가 깨닫는 일을 막고, 따라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정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때까지 순수한 진리가 그에게 제공될 수 없거나, 또는 그에게 순수한 진리가 제공이 된다면, 그가 순수한 진리를 순수한 진리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을 향해 다가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이 영접받기를 원한다. 잘못된 견해는 인간이 정한,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장벽이다. 사람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아직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장벽이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장벽을 허물도록 자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멸적으로 비판하고, 이로써 인간이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신념을 흔들릴 것이다. 그가 이를 따르면, 그는 곧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올바른 생각의 내용을 그에게 주고, 그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견해를 고수하는 한, 존재는 잘못된 견해 가운데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그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이웃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을 수록,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록,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를 지식으로 인도하고, 깨닫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기까지 단지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사람의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려면, 모든 인내심으로 해야만 한다. 이웃사람 자신이 진리 안에 섰고, 이로써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웃사람의 사랑이 사람의 잘못된 견해를 반박할 수 있다. 왜냐면 승리자는 항상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또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멘

오류를 가려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B.D. No. 8814

1964년 6월 19일

너희가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말씀에 슬며시 들어온 오류를 가려내는 것도 이에 속한다. 이 오류는 단지 순수한 진리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무엇이 너희에게 내 가르침으로 전해진 것이 진리라고 보증할 수 있는지 너희는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단순히 사람의 말을 진리로 영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런 가르침에는 항상 사람들을 혼돈에 빠트리려는 내 대적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수한 진리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오류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내가 진실로 거절하지 않을 응답을 구하면, 너희는 이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언제든지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것이다.

나는 선한 쪽에 서든 악한 쪽에 서든 어떤 쪽에서도 이 자유의지를 정할 수 없다는 것에 그리고 너희가 이런 너희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에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강요 가운데 정해진 교리로서 너희가 영접하게 가르치는 것은 내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다.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자유를 빼앗아서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러 가지 교파를 서로 비교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교파 가운데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건 말건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의미하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첨가되어 누구든지 이를 자세히 비교해 본다면 전적인 모순으로 알아볼 수 있는 복음에 만족한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관점을 없애게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을 통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믿게 하는 강한 속임수를 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선에 두는 일만이 효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자유의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과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한가지 수단인 너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의 역사에 대해 너희가 모르고 있다. 너희는 "나 스스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얻은 믿음을 거절한다. 그러나 이 것만이 진리이고 많은 오류

를 찾아 낸다. 너희가 사탄의 계명에 복종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가 올바른 것으로 깨달은 가르침을 위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절대로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너희는 노예이고 전적으로 자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를 영접 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주 사람들을 한가지 생각의 방향만으로 가지게 양육해야만 한다는데 항의하며 반대를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이 땅에 살 동안 너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계명만을 지켜라. 그들에게 단지 사랑의 계명만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그 사람의 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사랑의 삶을 살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졌는지 나타나게 되고 그는 자기 안에서 내 영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 안으로 인도받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받고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되게 될 수 없다.

너희는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천이며 그는 구속사역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이 세운 내 교회에 속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크리스천이다. 너희가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내가 계속하여 항상 이와 싸울 것인 많은 잘못 된 가르침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진리가 너희를 나에 게로 인도한다. 단지 진리를 통해 만이 너희가 복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이 땅의 내 대리자에게 진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를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되게 되길 원하면, 진리 안에 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B.D. No. 4069

1947년 6월 25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는 거부하기 위한 학문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특별히 날카로운 이성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방법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인류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일이 또한 종말의 때의 징조이다. 그럴지라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논쟁이 되는 문제에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단지 자주 연약하고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 단지 가장 작은 자극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는가?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다. 구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면, 나는 그에게 설명해줄 준비가 되어있다. 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깨달음에 진실로 만족할 것이고 그는 이제 또한 확신을 가지고 대변한다. 그러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알기 원하고 단지 자신에게 편한 답변을 인정하기 원하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실제 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진리 합당한 결과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권좌에 앉아 나를 물리치기 원하는 대적하는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는 종말의 시작이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를 전적으로 물리치려고 시도하는 일이 해당이 되는 주어진 경계선을 넘어서면, 영원한 법칙에 따라 내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은 극심한 싸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권세 있는 말들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환상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고 모든 종교적인 믿음의 내용과 가르침들이 해체될 것이고 전적으로 확실하게 서있지 않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고 그들 자신이 영의 눈이 먼 가운데 살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한 스스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적자의 오류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우침을 구하는 사람이 공의와 진리에 대한 선한 의지가 있을 때 기꺼이 깨우쳐주는 깨우침을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흔들리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이런 가장 큰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 왜냐면 그가 거짓 빛을 따르고 세상 지혜자의 확신에 찬 말을 따르고 그들의 날카로운 이성과 그들의 논리에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포기하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한다.

내가 영원으로부터 이런 싸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하는 사람들과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 전에 이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진리에 열

심을 드리고 진리를 받을 정도로 자신을 합당하게 만드는 사람과 자유의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 지혜자의 날카로운 이성을 넘어설 것이다. 그는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의 영은 깨우침을 받을 것이고 어떤 것도 그로부터 그의 믿음과 확신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와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을 영원을 위해 얻기 원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B.D. No. 4541

1949년 1월 15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신성을 믿는 일은 자주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이성이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지식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때문이다. 이 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이끈다. 그러면 영원한 창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실제 창조주를 깨달아야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지 않는다.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과학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은 잘못된 관점 위에 세워진다. 결국 영원한 신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신성을 찾는 일이 아주 어렵다.

모든 연구는 비록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연구는 빠르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성을 제외시켜야만 하고, 심장의 느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과학을 곁으로 치우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의 느낌을 통해 생각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진리로 영접해야만 한다. 그는 어느 정도 깨어난 눈으로 꿈을 꺾어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신성이, 사람이 신성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아른거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진 상태로 머문다. 단지 세상의 이성이 가장 깊은 소원을 없애려고 한다. 왜냐하면 신성을 몰아내려는 그러나 사람의 심장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악하게 사람의 이성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가 이성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장을 통해 표현한다. 심장이 더 강하여 이성을 심장의 편으로 끌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성을 통해 표현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심장과 이성은 영원한 신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과학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다. 과학은 진실로 잘못된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연구가 한 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면, 이 연구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연구가 어느 영역에 수행되던지 간에 진리에 가까이 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믿음이 더 이상 모순이 되지 않고 단지 서로 간을 채워줄 것이다. 지식이, 존재했던 것과 존재하는 것과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위에 있는,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

이 충만한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지식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아멘

잘못 된 가르침의 악한 영향력.

B.D. No. 6710

1956년 12월 9일

단지 진리가 있는 곳에 빛이 있다. 그러므로 잘못 된 가르침으로 인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연관관계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내면은 어둡게 머문다. 그들이 이런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나에 관해 뼈뚫어진 개념이 제공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단지 나를 복수하는 하나님이고 벌을 주는 심판자로 두려워한다. 반면에 순수한 진리는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에게 이끌림을 느끼게 하고 그들 안에 사랑이 깨어나게 한다. 왜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아버지로 모든 자신을 섬기는 종들이 신실하게 복종하는 주님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꼈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단지 내 뜻을 성취하려고 시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진리가 전해졌다면, 그들은 나를 사랑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사람들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인 사랑없음이 사람들이 빛 안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에 대한 잘못 된 가르침이 전해졌고 잘못 된 생각이 전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들의 눈먼 상태는 아주 깊어 어떤 빛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진리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내 대적자는 밤을 이처럼 깊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여 아주 희귀하게 사람들이 아침의 빛을 찾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달할 수 없게 보이는 밤에도 반짝이는 빛들이 비춰진다. 이런 빛 가운데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어둠을 벗어나 낮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준다. 전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도해주는 인도자가 함께 하고 단지 작은 선한 의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의지가 없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선명하게 설명을 받는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언젠가 진리를 제공받을 것이다. 나는 실제의 나 자신 그대로 온전한 존재로 사랑과 지혜의 권능으로 그에게 소개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나에 대한 개념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이미지를 항상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에게 이런 개념이 항상 더욱 선명해지고 빛이 더욱 충만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관점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의 심장은 어두운 밤으로 머물고 그에게 제공 된 진리는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왜곡 된 개념이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항상 진리가 제공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이처럼 저조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 된 가르침을 통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나로부터 절대로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믿기를 자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 된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이런 존재를 믿는 일이 그들에게 어려웠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 수정해줄기를 구하지 않았고 진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 된 가르침은 내 대적자의 무기이다. 이 무기는 항상 나에게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내 대적자가 의도하는 대로 나를 믿는 믿음을 파괴하기에 아주 합당하다. 이처럼 불신이 만연하게 된 이유를 잘못 된 영적인 내용이 전파 된 일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만든 왜곡 된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순수한 진리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나와 다시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사람들에게 묘사해줄 수 있다. 단지 가장 밝은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사람 자신이 보기 위해 눈을 뜰 때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잘못 된 가르침.

B.D. No. 8035

1961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며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엄격하고 긍휼이 없는 항상 단지 벌을 주고 심판하고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심판자로 묘사되면, 너희가 내 성품에 관해 얼마나 왜곡 된 관점으로 묘사 받은 것인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은 항상 단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에서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계명을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 관해 이런 관점을 만들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이 이런 목표를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렇게 소개 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의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자신의 자녀들과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신실한 아버지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얻어야만 한다. 너희가 영원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느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사랑이고 진리이고 권세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내 성품에 관한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너희가 잘못을 행했으면 너희에게 벌을 주는 한 분 하나님을 너희는 실제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너희가 죄악 된 상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너희를 도와준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선물한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존재를 깊은 것으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는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 항상 단지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내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절대로 내 끝없는 사랑과 일치할 수 없는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복수하는 벌주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가르침에 절대로 믿음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아주 큰 잘못 된 가르침으로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피조물을 저주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한 것이고 나는 항상 단지 그를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공의를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단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서 깊은 곳을 향한 존재들에게 축복을 선물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항상 단지 자상하고 아주 사랑이 충만한 너희에게 사랑을 선물해 줄 준비가 되어있는 그러나 그의 온전함으로 인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며 역사할 수 없는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존재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다. 가장 깊이에 타락한 존재도 단지 나에게 요구하는 손을 벌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손을 붙잡고 높은 것으로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과 내 긍휼은 아주 커서 존재가 자유의지로 자신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모든 죄를 간과하고 죄를 용서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위해 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즉 공의가 요구하는 데로 죄값을 치른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모든 진실되게 설명하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자유의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순수한 진리가 전해져야만 한다.

잘못 된 가르침은 너희들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못 된 가르침을 명백하게 잘못 된 것으로 확정 지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은 너희들 어두운 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녀에게서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사랑이 우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 심장 안에 나에게 대한 두려움을 심는 내 대적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나와 내 성품에 관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B.D. No. 8296

1962년 10월 11일

잘못 된 생각이 너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못 된 생각이 다시 많은 잘못 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수한 진리 때문에 설명을 갈망을 하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 공의를 믿어야 하면, 너희는 나를 불의하게 벌을 주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가르치는 나에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의 죄를 4 대에 걸쳐서 벌하리라”는 말을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런 잘못 된 관점을 너희에게 가르쳐 왔다.

내가 긍휼이 없어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자녀까지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영접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까지 아버지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죄는 단지 특정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죄악 된 아버지의 삶으로 인한 연약함과 신체적인 장애, 혼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나타나는 효과는 이웃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연약함과 장애를 내 편에서 주는 별로 여기고 있다.

죄악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도 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과 구속을 구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 자녀는 바로 힘든 운명을 통해 빠르게 혼의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이 땅의 과정을 의식하며 스스로 짊어진 혼들이다.

왜냐면 이 전에 혼들에게 이런 운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항상 단지 혼의 성장에 관한 일이고 인간으로써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크게 또는 적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보다 빠르게 완성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사는 삶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근거한 어려운 운명을 맞이하면, 항상 불공정한 것으로 원망한다.

귀환의 과정을 위하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불행한 상태를 내가 사랑이 없고 불의 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이던 영적인 것이던, 법칙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나타나지 않게 그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항상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공의가 사람들에게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지나치게 큰 짐을 가지고 저세상에 들어가지 않게 짐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석을 찾지 못했으면, 이 땅의 삶에서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책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한걸음 성장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범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저세상에서 무능력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그의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을 혼들이 자주 자신과 같은 성향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과 연결 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돕기 위해 혼들이 의식적으로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짊어진다.

아버지의 죄가 4 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은 내 영원한 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것이 자연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면 이 결과가 다시 다른 혼들에게 그들이 높은 곳을 향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는 혼이 다시 새롭게 육신을 입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의지인 것처럼 사람들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내 편에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오류이다. 왜냐면 무슨 일이 혼에게 닥치던지 간에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던지 간에 혼에게 단지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혼들은 그들 스스로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했으면 그의 고난은 줄어들고 그의 이 땅의 운명은 쉽고 견딜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항상 단지 내 불의로 보기를 원하면,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한 너희의 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너희가 항상 단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단지 짧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희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 많은 보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많은 불의의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주 큰 오류의 수정 (루시퍼의 타락)

B.D. No. 8858

1964년 9월 23일

원 초에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것만 창조되어 나왔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순수하지 못한 영들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설명하는 것을 접하면, 너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모든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왜냐면 나 외에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가장 먼저 창조된 빛의 영은 내 능력으로 채워졌고 우리 둘의 사랑의 의지와 능력으로부터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창조되어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날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는 전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행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목표로 정한 내 영원한 계획을 너희는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내 반대의 극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존재들의 창조에 관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설명이 주어지면, 너희는 내 온전함에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내 의지에 의해 처음부터 부족하게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 대한 내 사랑을 의심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에 관해 진리를 전해 줘야만 한다. 왜냐면 오류는 계속해서 다른 오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런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혼란을 일으키려는 내 대적자에 의해 사용된 이성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내가 너희를 모든 순수한 진리 안에서 인도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계시를 해줘야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로부터 타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이런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전까지는 계속하여 내 사랑이 존재에게 흘러갈 수 있었고 계속하여 그 들은 넘치고 축복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 내가 내 사랑을 비추어 주기 위해 나에게 첫 번째 그릇으로 창조한 존재는 영원에 영원 동안 그가 신적인 피조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떠날 때까지 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는 자였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순수하지 못한 존재를 창조 했으면, 이런 존재를 창조한 나 자신에게 비난이 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온전함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 나는 순수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어

던 것도 순수하지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순수하게 되지 못한 자들을 다시 정화시키는 곳으로 인도하게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되게 창조의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가. 이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가.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순한 진리를 전한다. 왜냐면 이런 순수한 진리가 없이는 너희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온전함에 의심을 품게 되는 나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그의 온전함을 의심하는 이런 존재를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원래의 너희가 존재했던 것처럼 다시 되기 위해 너희가 깊은 곳을 향한 길을 갔지만 너희는 나로부터 모든 온전함 가운데 창조되어 나온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적하며 거절한 죄의 결과로써 너희가 소유하게 된 작은 깨달음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이 작은 깨달음에 너희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 작은 깨달음이 만약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아주 큰 모순이 있으면, 너희는 이를 고려할 것도 없이 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대적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참여했다는 설명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만이 나로 하여금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게 했다.

그러나 최고로 높은 온전함의 상태에서부터 최고로 깊은 곳으로 떨어진 타락은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이런 모든 존재를 다시 얻는다는 확신만이 나로 하여금 이 타락을 막지 않게 했다. 존재들이 빛의 전달자로서 제일 먼저 타락을 한 자신의 주인과 같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로 창조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내가 그가 타락해야만 하게 그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자유의지가 그의 타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그가 존재했던 것처럼 다시 되기 위해 그는 자유의지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아멘

계시 번호 **8858** 에서 계속: 큰 오류의 수정

B.D. No. **8859**

1964년 9월 24일

너희에게서 내 온전함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가면, 너희가 내 온전함을 의심하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믿음은 빼앗아갈 수 있는 잘못 된 가르침에 빠진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너희에게 단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적인 진리만을 말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가졌던 너희의 의지도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게 된다. 왜냐면 너희들도 너희가 타락한 것에 대한 이유를 "온전하지 못하게 창조 된 것"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은 결단코 전적으로 무효화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타락할 때에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갈 때 아주 지극히 작은 그림자나 어두움이 너희를 감싸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나와 똑같이 최고로 온전한 빛의 존재였다는 것을 너희의 신적인 성품의 증거로

너희를 채우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면, 너희의 타락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최초로 창조 된 원래의 영도 같은 빛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고 타락할 필요가 없었음을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반대로 변하게 되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작품도 아니라는 것을 이는 단지 그의 자유의지의 나타난 결과로서 내 온전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비록 내가 영원 전부터 그가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알았을 지라도 최초로 창조 된 영이 타락하게 영원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잘못 영접한대로 그가 타락을 해야만 했으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내 의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그러면 나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아직 내 온전함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나와 순수한 진리를 숨기기 위해 인간적인 이성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설명에 영향을 받은 너희가 모든 것에 깨우침을 받게 돼야만 한다. 내가 나로부터 직접 내 말을 받는 내 일꾼들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항상 또 다시 내 말에 끼어드는 이런 오류를 아무리 수정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순수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지배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내 대적자가 역사를 하여 첫 번째로 내 온전함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로써 잘못 된 가르침이 생겨 나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때문에 이런 오류를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만 한다. 종말 직전의 때에 이런 일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내 피조물들에게 요구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위해 내 존재가 올바르게 알려지게 되어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단지 최고로 온전한 자신 안에 지극히 작은 어떤 부족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에게 드러져야만 한다.

내 최초로 창조 된 영이 타락을 한 것과 왜 타락을 했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에게도 이에 관해 선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만약에 너희가 타락과 모두가 최고의 축복에 도달하게 도우려고 하는 내 의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 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깨어나지 못한 영이 순수한 이성적인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내 의지는 선하기 때문이다. 내 의지는 절대로 법칙에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내 의지는 단지 항상 내 사랑에 합당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첫 번째 존재의 타락을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던지 간에 자유의지를 주었다. 내가 영원 전부터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내 구원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미움으로 나를 대적할 지를 보았고 그는 이제 나에게 상극이 되어버렸다. 비록 자신의 의지에 반대 된다고 할 지라도 수많은 내 존재들이 구속하는 역사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왜냐면 내가 한 가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자녀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 원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가 깊은 곳으로 꼭 타락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 내가 세운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들에게 원래 초기의 그들의 존재로 다시 되게 하기 위해 끝 없이 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게 한 것은 그러므로 나 스스로 나 자신과 반대가 되는 죄악 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단지 최고의 온전한 상태만을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는 내 원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묘사는 잘못 된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잘못 된 것으로 낙인을 찍어야만 한다. 나는 깊은 사랑과 더 할 수 없는 지혜가운데 내 능력으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내 온전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목표와 목적이 없이 창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최고로 온전한자로 깨닫게 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큰 오류를 수정한다.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오류

B.D. No. 8923
1965년 2월 1일

나는 내 안에 악이 자리잡고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내가 모든 나쁜 충동과 성품들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 했다고 믿는 너희에게 빛을 전하는 권세 있는 설명을 해줄 것이다. 인간으로서 다시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모든 충동과 싸워야만 하는 너희는 나로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내 형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고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런 온전한 상태에 머물렀었다. 그들이 내 형상이라고 하면, 너희의 관점대로라면 나 자신의 원래의 성품에도 모든 악한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나는 양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야 하고 존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질에 따라 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는 나에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나 즉 나 자신이 이런 죄를 짓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즉 존재들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온전한 존재를 그 안에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 있다고 상상하면, 너희 스스로 모순이 된 것이다. 온전한 것은 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하지 못한 성품과 연결시킬 수 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더 이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은 그러나 영원히 스스로 속죄를 할 수 없는 원죄를 지고 있다. 이로써 너희는 얼마 나를 대적한 죄가 크고 끔찍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인간이 예수가 완성한 이런 공활을 역사를 요구하는 이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인가? 공의 때문에 이 죄를 한번 속죄해야만 함을 깨달은 가장 순수한 천사중의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가 그의 사랑을 대적한 가장 큰 죄라는 깨달음 가운데 자신을 이런 속죄역사를 위해 제공을 했다. 나 자신 모든 반대되는 것을 자기 안에 갖게 이 존재들을 창조하여 이런 죄를 짓게 도왔단 말인가?

그리고 나로 인해 지은 죄 때문에 물질 안의 과정을 거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존재들이 거치었던 말인가? 이로써 내가 최고로 온전한 제한이 없는 너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고 있다. 너희는 죄를 짓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것은 내 대적자의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

대적자 스스로 이 죄의 근원이 되었고 너희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하는 순간에 모든 악한 충동들을 너희 안에 심어 주었고 이로써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대적할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내 온전함은 선명하지 못한 개념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악의 근원을 나에게서 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원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원죄에 대해 너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죄에 대한 기질을 넣어서 너희를 창조했으면, 너희는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을 수 가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로써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대적한 죄는 너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내 대적자가 이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를 그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너희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너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돕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나를 섬기려고 하는 너희에게 창조의 역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의 세계는 원래 초기에는 모든 온전함 가운데 창조되었고 영원에 영원을 거치는 동안 내가 원래 창조한 존재들과 함께 넘치게 축복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나로부터 최초로 창조 된 영이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반항을 알았고 내 원래의 영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나로부터 타락할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내 형상으로 나와 같은 창조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갖게 창조했다. 그가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모든 그의 잘못 된 성품들을 자신에게 자유의지로 따른 존재들에게 전할 때에 나는 이를 막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모든 존재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놔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타락은 단지 자유의지로 일어났고 존재들이 깨달음의 빛 가운데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내 대적자가 그들의 안에 넣어준 그의 모든 악한 성품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 일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아멘

삼위 일체가 오류가 됨.

B.D. No. 5389

1952년 5월 11일

하나님의 삼위 일체가 세 인격체 안의 하나님으로 잘못되게 표현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 되었다. 그런 설명은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드릴 수 없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반면에 올바른 설명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그런 설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현저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념은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 선명하지 못하게 되어 믿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신성을 세 인격체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개념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근거가 있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왜냐면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성을 완전히 제외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도록 이성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진다 면, 이성은 하나님의 지원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아주 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날카로운 이성적인 생각도 진리에 대항하도록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지혜와 힘이 그 안에 통합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랑이 원초적인 개념이고,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고, 사랑과 지혜 둘이 하나가 되어 의지의 힘이 나타난다. 사랑은 창조적 원리이고 모든 것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사랑은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계획이 없이 또는 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고 옳다고 깨닫는 일을 사랑이 의지가 실행하도록 재촉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에 옮긴다. 이런 일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개념이다. 왜냐면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은 거룩한 신성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주지만 그러나 절대로 서로 다른 세 신적인 인격체가 한 존재 안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왜냐면 그런 설명은 본능적으로 거절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써 진지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되었을 기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목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위해 세 존재를 불러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생각이었고,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는 사탄의 볼 수 있는 역사였다. 사탄은 항상 진리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려고 시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받아드려 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빛이 없고 또한 분별력이 없고, 그러므로 사탄의 손에 좋은 도구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탄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

고 그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이 단지 희귀하게 행한 방식으로 믿음을 위험에 빠뜨렸다. 하나님을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믿을 수 있게 되려면, 이 존재가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만 한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이성이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고 입장을 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믿음이 내적인 확신이 되면 비로소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드리도록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곳에서는 단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오히려 혼에게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개념이 왜곡시켜 축복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지 않게 되면, 혼에게 더 특별한 해를 끼친다.

아멘

삼위일체의 문제.

B.D. No. 7117

1958년 5월 11일

전적으로 잘못 된 설명으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답을 주면 해명은 영접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생각해 보는 일을 사람들에게 금지한 개념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채우는 영으로 깨닫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신성이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가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잘못 생각하게 않게 한다. 왜냐면 이 개념에 자체가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된 단지 한 존재 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들은 지혜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불길이고 불길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지혜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게다가 사랑은 항상 단지 최고의 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계속해 사랑을 발산한다. 발산 된 사랑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완성을 돕는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영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한 존재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존재가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 이제 신성으로부터 서로 달리 부를 수 있는 두번째 존재를 만들어 내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단순히 영접하는 사람이 이 두 존재를 영으로써 하나로 말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세가지로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일이 항상 단지 한 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영원한 신성이 분리될 수 없고 영원한 신성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모든 것을 감싸고 채우고 있는 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 된다.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을 가진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과 기도가 항상 아직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게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너희는 예수를 부른다. 너희는 영이 너희에게 오기를 구하며 영을 부른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세가지 개념이 한 개념이 되었을 때 너희가 사랑으로써 아버지 지혜로써 아들, 능력으로써 영을 하나가 된 한 존재를 부를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올바르게 기도할 것이다.

왜냐면 비록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이 세가지가 하나라는 부가설명이 된 상태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계속되는 잘못 된 관점으로 인도하는 큰 오류이다. 왜냐면 바로 예수 안의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큰 능력이 있고 아직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너희가 이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진지한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깨달음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로 너희의 생각이 선명해지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는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

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겉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의 존재를 믿으라.

B.D. No. 6485

1956년 2월 26일

예수의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부인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자주 의심한다. 이런 일도 또한 예수를 고백하거나 거부하려는 자유의지의 표현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면에서 그들에게 진리임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는 바로 사람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인간의 심장 안에 두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다.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이미 줄어들었거나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확실히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의심을 물리칠 수 있다. 왜냐면 가장 이성적인 사람도 모든 정보들과 모든 가르침들과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를 허공에서 가져온 것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증거들이 부인하기 보다 옹호한다.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예수가 인간에게 약속한 영을 부어주는 일이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할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왜냐면 영을 통해 깨우침 받는 일은 먼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아주 어두워서 그들은 어떤 연관 관계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랑이 확실하게 심장이 밝게 해줬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깨어난 이성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은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압수되었고 대적자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법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이성의 활동은 항상 단지 이 땅의 삶에만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이웃에게 전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일은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그의 추종자들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단지 사탄을 위

해 일한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지식을 얻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보장한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은 인간이 불가능하게 생각할 정도로 치열하게 일어난다.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런 구원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문제를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고 그들의 깨어난 이성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그는 단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잘못 된 결론을 내리고 그는 뿔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 왜냐면 그가 유일하게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이고 믿음과 사랑의 길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B.D. No. 7250

1959년 1월 8일

 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서 그에게 계시되어 계속되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을 이해한 사람은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왜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혼이 성장 과정에 불리하게 되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은 아무런 영적인 연결이 없는 영적인 추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고 믿을 만하지 않게 머물 것이다. 영을 추구하는 일은 혼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이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의 생각은 진리보다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다. 그는 오류를 우선적으로 영접하고 이런 오류를 진리로 여길 것이고 순수한 진리는 그에게 영접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의 영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영의 어둡다는 말을 이성이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 안의 불씨가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영적인 원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된 일은 영적인 원인에서 나온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게 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어떤 것도 사람들을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난 일도 인간의 법칙 아래 일어났지만 그러나 잉태 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

인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생성되게 하는 일이 가능하는 것을 의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잉태되지 않고 태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깨우침을 받은 영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창조 된 영의 존재의 자유의지가 모든 창조물이 창조 된 영적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런 자유의지가 한때 창조 된 원래의 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역할에 의미가 있고 이 역할이 인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단지 적은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갖도록 어떤 강요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한다. 여기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원래 창조 된 존재로 바꾸고 다시 영적으로 바꾸는 일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한다. 증명해주는 일은 결정하게 강요하는 일이다. 모든 창조 작품의 목적이요 목표인 한때 원래 존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도 결정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래 초기의 상태와 목적을 알아야만 하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과 창조 안에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을 절대로 책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전달돼야만 한다. 그러나 전달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단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취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선행조건이 요구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지 이런 선행조건이 갖추어 진 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요구하는 일이다. 진리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일부분인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에 깨달음의 빛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들을 알려 주게 될 것이고 그는 선명하고 밝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놀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그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이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난 영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때와 현재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예수의 삶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한 삶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의 삶을 들을 것이다. 그의 영이 단지 깨어 있으면,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깨어남이 없이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도 혼이 성숙해지는 일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증거로부터 나온 믿음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사람의 이성은 사람 안에 영이 깨어나는 일과 단지 적게 연관이 있다.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깊은 비밀을 연구하는 일은 이성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 계명을 성취하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효과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사람들을 모든 지혜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거만함의 위험성.

B.D. No. 8282

1962년 9월 25일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한 내 말을 심장으로 영접한 사람은 항상 깊은 겸손 가운데 남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거만하게 만들지 않고 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아직 완전 하지 못하는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도 내 능력과 지원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와서 내 능력과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의 성품이 교만한 성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자신의 이웃들보다 위로 높인다.

이런 거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사랑이 없는 판단을 하는 데서 지식이 세상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간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나타난다. 거만한 사람은 항상 그가 이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진실로 이런 거만은 그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내 대적자의 요소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보다 더 높였기 때문이다. 그는 큰 무리의 피조물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들었다. 타락한 존재들이 인간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보아야 할 때가 되면, 이런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아직 거만한 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만함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염려스러운 증거이다. 이에 대항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가장 깊은 겸손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웃들보다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전적인 이해하게 될 때까지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겸손함은 나와 의 올바른 관계에 속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고백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고 그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를 구할 것이다. 겸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긴밀하게 부르짖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겸손한 자에게 내가 내 은혜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온전하다고 여길 수 없다. 그는 단지 높은 정도의 깨달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깨달음이 그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베푸는 피조물들을 실제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나 거만하게 만들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거만은 항상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빛을 흐리게 하려고 시도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아직 이런 악과 대항해 많이 싸워야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자신이 고귀하다는 잘못 된 감정을 주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공격할 수 있는 측면을 찾는 일을 누구 안에게 그 자신의 거만함이 깨어나게 할 수 있는지 항상 이해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고 모든 거만한 감정의 씨앗을 제거하려고 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너희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교만으로 인한 타락을 속죄하기 위해 가장 깊은 겸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속죄를 위해 그가 요구당했던 고통과 고난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교만으로 인한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지 겸손의 길을 통해 가능하다. 이 땅의 삶의 길이 그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내 사랑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이 땅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원하면, 항상 단지 내 도움을 청해야만 함을 깨닫게 해주야 한다.

그러나 아직 거만한 영으로 있는 사람은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가 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웃을 감싸는 올바른 사랑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거만함 가운데 그가 사랑을 선물해 줘야 할 사람을 멀리 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람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고 내 대적자가 그를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깊이 타락하지 않으면 같은 단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악을 대항해 싸우고 너희 자신을 엄격한 점검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작게 만드는 허물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가치를 잘못 판단함으로 만든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겸손만이 너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겸손하게 되면 너희는 나로부터 넘치게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왜냐면 겸손한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나에게 드리는 너희의 기도는 내적이고 헌신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나에게 이끌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 대적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자기 자신을 창조한 권세보다 자신을 더 높였기 때문에 내 대적자가 된 것이다.

아멘

예수의 몸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입자이다

B.D. No. 8756

1964년 2월 18일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나에게 질문하라.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너희가 너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는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29/56

그래서 너희는 필요하다면, 이성의 사람들에게도 너희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되는데 내 겉형체로써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최고로 높은 빛의 영과 인간 예수의 몸의 상태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타락한 영들과 타락하지 않은 영들도 물질로 된 겉형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땅의 과정을 거친다. 이 물질은 순수하지 못한 다른 원래의 영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물질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혼들은 그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혼은 모든 영적인지 못한 것을 자신에게서 물리쳐야 한다. 혼은 모든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하고 모든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들을 자신에게서 물리쳐야 하고 순수하지 못한 충동과 욕망과 싸워야 한다. 덕스럽지 못한 모든 성품을 덕성으로 바꿔야 한다. 혼들은 그들의 모든 성품을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혼들은 자신들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내 대적자로부터 항상 이런 일을 하게 자극을 받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물질로 된 겉형체 안에서 치르는 마지막 정화의 과정이다. 인간은 남김 없이 혼이 영화되는 전적인 성공할 수 있다. 만약에 혼이 가장 큰 사랑 안에서 이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역사하려고 할 경우에 만약에 혼 자신이 자신 안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을 몸에게 전해주기 위해 몸을 얻으려고 할 때 혼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고 몸이 항상 전적으로 세상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혼과 몸이 함께 자신 안의 영에게 속하게 되어 가장 깊은 나와 의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 혼은 몸을 동시에 구속하고 영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물질로 된 겉형체는 대적자에게 속했고 묶여 있는 상태 동안에만 대적자로부터 직접 조종을 받을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대적자로부터 오는 시험들에 놓여 있게 되고 이런 시험들에 저항해야만 한다. 몸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이런 추구를 항상 어렵게 만든다. 왜냐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 어두움의 영역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사랑을 행하면, 혼은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몸은 항상 혼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참여한다.

예수의 혼은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왜냐면 물질로 된 겉형체인 그의 몸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에 속하지 않은 내 의지에 의해서 굳어진 영적인 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대적자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에게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이 영화 되야 하는 성취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의 혼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혼 자신이 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빛에 끌려서 다가온 수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이 빛을 고통으로 여기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위가 되었다. 빛의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섰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선 빛을 꺼버리려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영역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에게 달려든 모든 악한 영들을 혼은 사랑 안에서 견뎌야만 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왜냐면 가장 큰 사랑이 예수 혼이 이 땅에 임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혼이 포기하지 않게 했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힘이 없고 불행한 존재들에게 이 사랑을 능력으로 사용했고 그의 사랑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들을 강제로 물리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몸도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을 받았다. 모든 인간의 육체에 거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몸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외부로부터 주변세계로부터 예수의 몸 안에 자연적인 욕망을 일깨우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혼은 받았다. 왜냐면 그의 몸도 비록 사탄적인 입자가 들어있지는 않고 단지 내 의지에 의해 죄 없이 만들어 졌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즉 그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한 순수한 그릇이었지만 그의 구속사역 때문에 몸은 모든 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에 다른 모든 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적인 유혹에 반응을 했다. 예수는 모든 이런 자신 안에 유혹을 극복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인간적인 느낌이나 세상을 향한 모든 소원이나 모든 정욕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는 저항을 해야만 했고 사랑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모든 시험에 스스로 대항해야만 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영화시켜야만 했다. 그는 이런 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그의 사랑이 능력을 주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구속사역도 완성했다. 인간 예수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체험하고 극복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모든 인류에게 모범이 되야 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이 목표에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영화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그에게 닥친 시험들은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적자 스스로 자신의 추종자를 잃지 않기 위해 그를 대항해 싸웠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 자신을 거하게 할 인간적인 걸형체는 순수하고 죄가 없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 몸의 입자들이 나를 떠났던 원래의 영에 속해 있었다면, 나는 이 몸 안에 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바로 이 걸형체가 영원에 영원 동안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최고의 빛의 존재인 내 독생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이후에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물질로 된 걸형체도 구속되길 원할지라도 구속될 수 없었다.

이로써 나도 인간 예수 안에서 내 영이 그 안에 거하면서 기적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지식이 전해지면, 너희는 이로 인해 너희를 오류에 빠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라. 왜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얼마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나에게 문의를 하면, 나는 모든 오류를 수정해줄 것이다.

아멘

나는 항상 단지 너희 심장에 들어온 의심을 해결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일어나면,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서서 있다고 믿으며 진리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또 다시 내 의지에 의해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만들어 그들의 내적으로 질문을 하게 만든다.

많은 잘못 된 생각들이 퍼져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잘못 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일부는 오해함으로 인해 생긴 것들이다.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부터 이 땅에 역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영적인 나라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예수의 혼이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는 관점이다.

사람들에게 모든 연관 관계가 선명해질 때 비로소 그들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이런 가르침들을 거절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연관 관계를 항상 또 다시 설명해 줘야만 한다. 이 일은 내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진리로서 항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을 수정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루시퍼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타락했을 때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빛의 존재들은 나와 함께 내 의지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

영의 나라에서 그들의 사역을 너희에게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들은 수많은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자들에게 성장을 위한 모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큰 사랑이 그들이 계속하여 구속사역을 하게 만든다. 그들은 사람들 영적인 위험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 이 땅에 임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너희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었다. 너희는 이전에 이미 많은 성장 기간을 거쳤던 시간대에 살고 있다. 빛의 나라는 항상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역사했다.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심장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운 사람들을 영접할 때도 있었다. 그들의 성품은 이미 나에게 귀환하는 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원죄의 짐이 있어 아직 큰 간격이 있었고 예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큰 간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라도 내 사랑은 내 대적자가 그들을 자신에게 묶어 두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시도하는 시험에 그들이 빠지지 않게 돌보아 주었다. 내가 대화를 통해 그들이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줬다.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임했다. 단지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한 빛의 영에 의해 말씀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빛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는 동안에만 사람들은 빛의 영을 볼 수 있었다. 빛의 존재는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이지만 그러나 이 영은 사명과 연결이 된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을 위해 내 말을 위해 외적인 형체가 되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게 한 것이고 사람에게 강요하는 효과를 내지 않게 한 것이다.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심장에 사랑이 충만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는 이 땅의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거나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형체를 다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순수한 영의 형체를 사용해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여러 차례 사람들 가운데 거했다.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가장 충만한 영인 예수의 혼은 나를 섬겨서 내 말이 그를 통해 전달될 수 있었고 그는 인간으로써 볼 수 있게 사람들 가운데 거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였다. 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과정이어서 이를 설명해 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는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빛의 영을 택했다. 그의 아주 큰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게 만들어서 이 영은 무한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영인 내 겉형체가 되기 위해 처음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된 것이다.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은 한번 일어난 일이고 한번 뿐인 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간이 된다는 것은 원죄의 사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 대적자의 영역에 거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가 그의 혼에 달라붙을 지라도 그는 이를 떨쳐 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자신을 나타낼 보이려고 가는 곳에는 어떠한 어두운 존재도 유혹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는 일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는 자신을 어두움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막을 수는 있지만 악한 영들의 저항도 있어도 안 된다. 만약에 타락한 천재들의 원죄를 비로소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연관시키면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것은 항상 타락한 원래의 영을 구속하기 위해 또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 혼은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예수 혼은 자유의지로 가장 큰 고난을 짊어 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 예수 혼을 가장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 예수 혼은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최고로 빛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진실로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였다. 단지 이런 혼 안에만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었다. 단지 그 안에서 만이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단지 그 만이 전적으로 융합되어 즉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아멘

예수가 육신을 입은 주제에 대한 질문.

B.D. No. 8264

1962년 9월 5일

내 이 땅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하늘로 승천하는 일로 끝이 났다. 한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피조물로 생성된 내 혼이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이 이뤄졌다. 모든

원래의 영들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온전하게 된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려면 언젠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내 원래의 혼은 여기에 더하여 영원한 사랑 자체인 아버지를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제는 아버지가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즉 인간 예수인 내 걸형체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자신을 나타냈고 이로써 아버지가 한때 자신이 창조했고 영적으로 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온전함에 도달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일은 너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의문이다. 이 일은 존재들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관련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일은 내 예수의 혼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일이고 그와 나는 하나이고 더 이상 나를 아버지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볼 수 있게 머물 것이라는 일이다.

나는 이제 내 신성으로 실제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 즉 나는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에게 예수로서 나타날 수 있고 이로써 그가 나를 자신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때 일어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임재를 약속했고 또한 이 임재를 너희에게 눈에 띄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마지막 날에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 힘과 영광 가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또한 가장 밝은 빛을 가진 나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예수의 혼이 다시 인간으로 이 땅에 환생을 했거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내 예수의 혼이 인간으로 이 땅에 환생했다는 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예수의 혼이 영원한 아버지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혼이 환생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는 일과 동일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실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야 하고 이런 일이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예수가 인간으로서 다시 이 땅으로 오는 일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 예수의 혼이 인간으로 다시 육신을 입는 일이 아니다.

내 예수의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로 머물고 모든 빛의 존재들이 나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빛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서 통치하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육신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이 되는 일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일이다. 높은 빛의 존재들과 최고로 높은 빛의 존재들이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임한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온전함의 최종 단계를 마치기 원하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을 대개 특별한 역사와 특별하게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의 성육신에 관한 계시를 받을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면 높은 빛의 존재들과 최고로 높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을지라도 내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이 그들의 기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 전적으로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라도 너희가 한 사람이 이런 저런 영이 육신을 입었다고 받아드린다면, 너희는 종종 내 대적자의 역사로 인해 오류에 빠진다. 그러나 사람 안에 육신을 입은 영에 대한 지식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 절대로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어느 정도 믿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는 온전히 자유롭게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B.D. No. 3277
1944년 10월 2일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나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들이 이 전에 모든 질문 앞에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설명을 간구하고, 설명이 주어지면,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했다는 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속사역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내 피가 죄짐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 인간 자신이 어느정도 역사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의 구속 역사를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계를 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단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나와 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중요하고,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사람이 나와 나의 사랑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 받게 된다면, 그는 그의 뜻과는 다르게 자유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 공의와 내 사랑이 모두 무력화되고, 인간이 이런 상태를 활용하여 나에게 연결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진리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말씀에 진리가 아닌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들이 구속 받기 원하는 지, 그들이 나의 사랑의 역사를 영접하기를 원할 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의지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단지 나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나를 거부할 때, 그는 가장 깊은 어두움과 자신의 죄에 묶여 있는 상태로 머문다.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많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속사역이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죄의 용서를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제공하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의 혼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나로부터 도망친다. 나는 그들의 죄와 죄짐으로부터 해방시킬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지만, 그

러나 그들이 이 선물을 거절하면, 이런 선물은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의 대적자를 위해 싸우는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의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때 까지 아직 나의 대적자에게 묶여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실제 그들의 자유의지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유 의지가 거부하는 일을 통해, 또는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일을 통해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수혜자라는 방식으로 나의 구속사역을 제시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짊어졌고, 그를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짐으로 나에게 넘기지 않고, 이로써 그들은 또한 자신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짐이 너무 강력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제 또한 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짐을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없이 모든 죄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위한 은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희생했고, 내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짐을 해결해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의지가 변화되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할 때 까지 너희의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B.D. No. 5724

1953년 7월 16일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그러나 인간이 구세주를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그를 위해서는 헛되이 드린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효력을 나타나게 하고,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가 구원받는 일이 보장이 된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않은 상태로 머물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모든 인류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의 구원이 이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지 의지가 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그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묶여 있는 상태이고, 선을 향한 의지가 억압을 받는 상태이고, 그가 자신의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을 수행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어기고, 그가 사랑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그는 잘못된 사랑으로 그의 사슬이 그를 계속하여 끌어 당기고, 그가 위로 향하기를 원하면, 그는 사슬과 그를 묶고 있는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한다.

그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랑의 힘이 아주 약하고,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묶고 있는 권세를 극복한 분을 부르고, 사람들을 묶고 있는 권세가 굴복하는 주님을 부르면, 그 안의 사랑의 힘이 단지 강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세주이자 죽음과 결박된 상태와 무기력한 상태의 극복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한이 없는 은혜를 얻었고, 이 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런 은혜를 활용하는 일이 의지를 강하게 하고,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 힘은 그가 피할 수 없게 위로 성장하도록 돕고, 그를 묶고 있는 사슬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희생의 효력을 받아드린 것이다. 그는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정복해야만 하는 권세의 폭력에 자신을 빠지게 한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땅의 사람이든 저세상의 사람이든 사람에게 대한 권세를 갖는다. 이런 일은 구세주가 혼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혼이 빛이 영원히 비추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고, 어떤 깨달음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이 무기력하고,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바꿀 수 없는,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혼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이 스스로 자신이 해방되기를 원해야만 한다. 혼이 아주 약한 빛을 통해 이 땅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원주로 여기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혼은 예수님을 불러야만 한다. 혼은 이런 부름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런 부름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부르는 부름을 하나님의 구세주가 듣고, 구세주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혼에게 도움을 주고, 혼의 고통으로부터 혼을 해방시킨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언젠가 일어나야만 하는 구원을 단지 지연시키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구속역사에 대한 너희의 태도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 땅에서 너희의 의지가 깨어날 수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종말의 때에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긴급하게 받을 수 있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원에 대한 설명을

갈망해야 하고 그러면 그는 적합한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외람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저세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유일하게 그의 비참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을 자신이 거부한 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이 고통받는 상태를 연장시키면, 그의 회개는 아주 고통스럽게 된다. 사람이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가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향해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고, 그가 죽음을 이긴 분을 인정하면, 그가 비로소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의 피가 자신을 구원하게 하면, 그가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설명

B.D. No. 8731

1964년 1월 20일

너희가 단지 진리를 향한 길을 통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를 위해 내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부터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을 잃지 않고 너희의 길을 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왜 이땅 위에 살고 있는지를 어디가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너희의 근원과 한때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삶 가운데 한가지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되고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오류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종류의 질문을 줄 것이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오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대부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오류 가운데 붙잡고 있는 자가 너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것을 항상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근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이것으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설명을 받으면, 너희는 너희의 완성과 나에게 귀환은 보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의지의 연약함을 벗어 날 것이다. 너희는 진지하게 너희의 완성을 위해 추구할 것이다. 이전에 너희를 땅으로 짓누르는 그래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던 원죄의 죄짐은 너희들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너희에게 항상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너희의 큰 죄짐을 사해 주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위해 흘러져야만 함을 너희는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신적인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하고 그에게 너희의 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그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때 나를 대적하였었다. 한때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하고 나와 다시 하나가 되길 갈망해야만 한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순수한 진리만이 너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 단지 진리를 통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가 왜 이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만약에 단지 내 대적자의 역사로 인하여 이 진리가 오류가 섞인 영적인 내용과 함께 관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잘못 설명되고 이로써 잘못 이해되게 됨으로 내 대적자의 목표대로 구속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대적자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올바른 길을 깨닫고 이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진리가 오류와 함께 관철되게 노력을 한다. 그의 목표는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이에 관한 깨달음을 빼앗는 것이다.

예수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지도자처럼 처신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의 목표는 모든 영적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믿음을 빼앗고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생각할 수 없는 불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만이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멀리 하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대적자인 내 원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도 계속하여 역사를 한다. 그거 진리에 대적해 싸우는 곳에 나는 순수한 진리를 계속하여 이 땅에 보내 준다. 순수한 진리는 항상 이 진리를 갈망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대적자가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렀고 나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항상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한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진리가넘치는 축복을 주는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거짓 된 영적인 지식은 사람들의 혼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진리만을 갈망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내용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에게 너희가 올바르고 진리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거짓 된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시게 부탁을 해야 한다. 진실로 내가 항상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예정론의 오류.

B.D. No. 2034

1941년 8월 18일

예정론의 오류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고,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정론에 대해 심사 숙고해보지 않고, 믿음의 가르침으로 제공된 예정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험이 된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죽이고, 높이 성장하는 일을 막고, 이로 인해 인간은 행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조종하는 세력에 자신을 위탁해서 끌려 다니게 하고, 눈에 띄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사로잡고 있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일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가치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으로 단지 본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이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할 수 없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에 대적하는 의지가 바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은 계속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도 없고, 축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맘대로 준다고 영접하는 일은 아주 잘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제한해서 영접하는 일은 잘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호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한다고 영접하는 일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한 부족한 인간은, 즉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자기 안에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인간은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렇지라도 그의 혼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 그러면 지하의 세력들이 강하게 발동하여,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긴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도와,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도와 역사한 것이다.

자신의 의지가 없이 또는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은혜의 공급으로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 이러한 성장은 자유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절대로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정설. 다양한 은혜의 분량.

B.D. No. 6757

1957년 2월 7일

너 구도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적게 받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일이 다른 사람처럼 쉽지 않다." 이는 옳은 점이 하나도 없는 잘못된 관점이다. 만약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원하면, 너희 모두가 은혜의 흐름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은혜로 역사하는 힘을 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위해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효과를 너희에게 허용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벗어나 이로써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너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의 보물을 얻었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구속사역의 은혜들 중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일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고 그에게 구원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된 의지는 이제 그에게 흐르는 은혜를 활용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은혜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일이 아주 적고 그는 은혜의 선물에 자신을 닫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저항이 그의 효과를 없애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활용하는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 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자기 의지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향하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 선을 향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미 붙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한다. 그는 곧 내면에 거부가 없이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옮겨지고 인도받아 도착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은혜의 물결이 그에게 항상 또 다시 흐르게 되고 그는 이 은혜의 물결의 효과에 자신을 맡긴다. 그러면 그는 아주 빠르게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무한하게 제공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은혜의 효과를 허용하고 활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너희 모두의 자유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이 된다. 바로 반발심이 강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절대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지의 자유가 이 땅의 사람들의 여러 상태를 설명해주지만 그러

나 서로 다른 크기로 은혜가 제공 된다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 잘못 된 견해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존재로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존재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무효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온전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 만든다. 단지 선한 의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잘못 된 가르침으로 깨닫는다. 왜냐면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최고로 온전하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이런 가르침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인간으로 사는 삶의 전체의 목표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존재가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은혜의 흐름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단지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이 벌어들이지 않은 이런 선물은 그에게 진실로 은혜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전에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피조물에게 항상 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은혜를 제한이 없게 제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은혜를 통해 의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의 성장은 항상 이 은혜를 영접하느냐에 달려 있고 각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

아멘

빌립보서. 예정론의 오류.

B.D. No. 7006

1957년 12월 30일

너희 모두는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며 단지 너희 스스로 언제 이 빛의 나라를 영접할지를 정한다. 인간이 스스로 계속하여 반대 방향을 추구하여 나와서 거리를 끝 없이 길게 할 수 있고 이로써 나와 떨어져 영원 동안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에 놓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는 그에 대한 내 뜻이 아니며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어두움의 존재에게 다시 빛이 비추고 내 대적자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태양의 빛 아래 속하고 내 사랑의 빛이 그를 측량할 수 없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기까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항상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나를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다시 나에게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져도 받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또 다시 영원 동안이나 비참한 가운데 남아 있는 존재도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예외 없이 내 은혜를 경험한다. 그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동안 내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물러서 있는데 이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을 내가 정해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저주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도 거짓이다.

내가 모든 각 사람의 의지를 안다는 것이 내가 각 사람의 의지를 결정함을 뜻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 의지가 모든 것을 정하면, 나에게 계명을 지키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이 이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저주를 위해 예정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을 전혀 기뻐할 수 없다.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의 구절을 이와 같이 오해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내가 스스로 사람을 택해 구원하고 또는 버림받는 것이 이뤄진다고 해석한다. 너희 사람에게 진실로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육체의 죽음 후의 운명을 정한다. 너희는 측량할 수 없게 복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너희 스스로 저주의 운명을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전혀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도 그의 힘이 아주 세다 할지라도 너희를 강요할 수 없다

너희 인생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끝없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연약해질 필요 없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의 생각, 의지 행동을 정한다. 내가 너희의 사후의 운명을 미리 정했으면, 너희의 의지의 자유가 진정으로 없는 것이 된다. 너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은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이지 내 맘대로 불공평하게 주는 은혜 때문이 아니다.

이런 잘못 된 인식은 항상 고쳐 나가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인식은 많은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이로 인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복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향한 열심을 내지 않기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나는 사랑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 중에 한가지라도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가르침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어떻게 내가 사랑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맘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다고 믿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나에게 돌아오는 구원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고 너희 아버지 집에 들어 갈수 있게 진정으로 힘쓰라. 왜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때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집에서 영접할 수 있는 때를 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잘못된 의지.

B.D. No. 2117

1941년 10월 16일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다. 모든 인간의 삶의 경로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예비되어 있다. 비록 인간의 의지가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사용할지를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사람이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삶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자신의 삶을 조종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을 형성하는 일에 어떤 우연도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삶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변화를 감사함으로 순복하며 받아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혼이 단지 더 높게 성장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항상 단지 혼이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활동을 통해 이런, 저런 일들을 피할 수 있다고 영접하는 일은 큰 오류이다. 사람의 뜻이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세운 계획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의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면, 그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잘못된 의지를 고려한다. 다시 말해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가 다시 혼이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그 사람의 그릇된 의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써 사람이 틀림없이 그릇된 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섭리한다. 그는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혼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연이어 일어나게 한다. 인간은 한번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 일어나는 일이 놀랍게 보일지라도, 우연은 없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멘

비록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없지만,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도 그의 목적이 있고, 우연한 일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섭리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삶의 행로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로는 항상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예견한, 사람들의 뜻과 일치한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도로, 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자주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한대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향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다.

육신을 입는 은혜가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그에게 또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볼 기회를 줘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한 것을, 또는 악한 것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단지 자신의 혼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다. 반면에 인간의 의지는 아직 어느 정도 이 땅의 일에 묶여 있고, 그가 실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땅의 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극할 수는 있고, 그의 결과는 절대로 유일하게 그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의지 표현의 효과를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인간의 의지가 다시 혼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혼의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항상 또 다시 인도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거나 또는 수행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지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일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일이 수행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성공하게 될지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 인간에게 어떤 삶의 길이 주어지든, 이는 인간의 혼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성숙하게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 원하면, 비록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뜻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는 인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정한대로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이 땅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인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역사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악의가 일으키는 모든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아멘

모든 일어나는 일이 혼이 완성에 이르게 해야 한다.

모든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왜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 된 것이고 사람들의 혼

에 선하게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것이다. 혼에 미치는 효과가 항상 또 다시 결정적이다. 이 효과는 부정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 되는 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육체는 실제 고난이나 또는 모든 종류의 언짢은 일들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혼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진척을 이루면, 이런 고난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들은 항상 단지 일시적이기 때문인 반면에 혼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영원히 영원한 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자신의 삶의 운명을 정하는 것을 의식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무의미하게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의식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님을 의식해야만 하고 길 잃은 자신의 자녀들이 귀환의 길을 찾게 항상 돕기 원하고, 고 돌보는 선하고 신실한 아버지를 항상 의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이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한다.

그는 비록 그에게 자신이 견딜 수 없게 보이는 십자가가 주어질지라도 항상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구하기만 하면, 한 분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써 그의 곁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육체를 떠나면, 사는 동안에 인간의 육체가 견뎌야만 한 일에 대해 감사한 일로 깨달을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게 고난을 피하게 해주기 원할지라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이 불순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모든 일을 행할 정도로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주 고통스러운 그러나 성공을 약속해 주는 도움의 수단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위에 있다는 확신이 너희 사람들이 모든 일을 쉽게 견디게 해야 하고 너희가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너희의 영적인 성장과 너희의 영적인 행복을 생각하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한 분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어떠한 일도 너희에게 일어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에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그의 의지와 그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의 사랑과 지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너희는 모든 체험을 통해 너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체험과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운다면, 너희는 단지 너희 혼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곧 너희로부터 십자가가 벗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단지 너희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혀 고난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면, 너희는 순수한 사랑이 돼야만 한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의 혼의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도움의 수단으로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단지 짧지만 그러나 혼은 최고로 가능한 완성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축복하라. 고난

가운데 복종하라.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에게 항상 단지 너희의 최선을 원하는 그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한 것에 감사하라.

아멘

우연은 없다. 어떤 일도 아무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B.D. No. 8477

1963년 4월 24일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면 내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너희가 모든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너희를 위해 영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내 허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제멋대로인 전횡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를 통해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 낼지는 너희 자신에게 맡겨서 있다.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의지의 시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너희는 항상 내 도움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진실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나에게 의탁하면, 나 자신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 의해 정해진 것이거나 또는 너희가 완성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허용이 된 것이다. 사랑의 삶을 통해 긴밀한 기도를 통해 나에게 향하는 생각을 통해 너희가 이제 나와 항상 연결이 되었으면, 너희는 너희가 나에게 반대되는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의 혼은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역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왜냐면 내가 모든 실마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섬겨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긴밀하게 갈망하는 너희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다가오는 때에 너희의 운명을 정할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단지 진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빛의 불씨가 빛나게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빛의 불씨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가운데 행복하게 느끼고 빛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빛이 비추어 저서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비추임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욱 깊은 어두움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빛이 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낮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빛을 갈망하는 너희 모두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어디에서 너희에게 빛이 비추어 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에 빛이 밝은 빛을 비추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이 빛을 통해 행복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을 물리 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비치는 빛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빛은 너희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너희가 진지하게 단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면, 너희는 전적인 선명함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평안하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속한 자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대화를 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너희가 어떠한 길도 나에게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혼자 가지 않는 것만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너희가 혼자서는 올바른 빛과 거짓 바울 구별하기에 아직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곳에서 너희에게 내 보호와 내 도움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심장에 올바른 생각을 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 안에서 거할 것이다.

나는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해 그 사람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모든 조건을 성취시키는 그릇을 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내 자신이 말하는지 언제 말하는지 알 것이다. 왜냐면 양은 내 음성을 깨닫기 때문이다. 내가 계시를 이 땅에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계시가 전파되게 돌볼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도 그를 쉽게 믿고 그가 역사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오류를 전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진리는 밝게 빛나는 빛처럼 비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대적자는 단지 거짓 빛을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짓 빛은 단지 어두움을 더욱 강하게 하고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만 한다. 이런 자유의지가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해야 하고 나 자신에게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아멘

종말에 대해.

B.D. No. 6482

1956년 2월 23일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종말이 임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리는 일이 사람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전적인 자유의지로 높은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특정한 종말의 시간이 알려짐으로 인해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동기로 자기의 혼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이 종말에 관해 불분명하게 할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이 종말이 언젠가는 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구원시대의 시작 때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된 종말 중에 너희가 단지 일부분을 알고 있지만 종말은 언젠가 임한다. 이 구원의 시대들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따라 정해졌고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 기간은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깨닫는 내 지식이 계산해서 정해졌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계시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땅의 종말은 괴물같이 생각돼서 이 종말이 지구의 창조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지구를 생성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임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깊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수는 단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단지 절대로 실제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종말이 현실이 되어 이를 체험하는 세대에는 속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종말에 대한 의심을 혼의 성장을 위해 평안하게 가져도 되지만 그러나 종말에 관해 숙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숙고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믿음을 강요하는 일은 해가 되므로 나에게 의한 강요는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단지 징조를 알려주고 절대로 종말의 날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너희에게 종말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너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없고 너희는 이 땅을 덮고 있는 깊은 흑암을 볼 수 없고 너희는 최근 들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빛과 어두움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진리가 아닌 거짓과 잘못 된 가르침과 공개적인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일로 어두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오류에 빠져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한 진리가 빛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디서 구하고 찾느냐? 너희는 실제 진리 안에 사는 줄로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는 놀라는 가운데 확실하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면, 이런 상태를 끝맺어야만 함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빛을 기대한 곳에서 흑암의 권세자가 현혹하는 빛을 세워 너희의 눈을 단지 더욱 어둡게 만들어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흑암의 권세자는 진실로 사람들이 그들의 혼을 위해 일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의 관점을 유혹하는 목표로 이끄는 법을 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그런 목표에 절대로 도달 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내 계획이 영원 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이다. (1956년 2월 23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계획의 개요를 알게 하는 일은 너희의 믿음을 강요하려는 일이 아니고 단지 이를 통해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한 구원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근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런 종말의 목적을 설명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너희 자신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내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지 종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비록 예언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할지라도 이를 믿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하여 받아 들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오류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 구원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내 사역과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전해진다. 그러나 항상 단지 사람들을 위해 최고로 계획되었고 실행되는 내 사랑과 지혜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나타나 그들은 이런 근거에 대해 자신을 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단지 형벌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만 본다면, 너희도 이런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가 종말을 타락했던 인간을 위하고 뿐만 아니라 창조물에 묶여 있는 영들이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너희에게 믿음만하게 보일 것이다.

비록 너희 자신이 사람들의 깊은 타락을 알아보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장단계에 있는지는 유일하게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 전부터 언제 내가 내 질서를 다시 세워야만 하는 일이 필요한지를 안다. 언제 내 대적자를 제지를 해야만 할지를 알고 지구가 또 다시 성장이 필요한 영들의 성장장소로 쓰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나만이 유일하게 언제 사람들이 가장 깊은 타락 상태에 도달하는지를 알고 어디에서 대적자의 역사를 저지해야만 하는 지를 안다.

내가 이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종들에게 비록 내 종들이 믿는 사람을 적게 찾을 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거론하라는 사명을 준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시한과 날짜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가 내 계시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얼마나 종말이 가까이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모두에게 아주 급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너희 모두는 혼의 성장을 위해 아주 열심히 애를 써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매일 매일이 너희에게는 하내 내 은혜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는 데 희망을 두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준비를 할 것이고 육신의 평안보다 영의 평안에 중점을 둘 것이며 영원을 위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아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대적자의 공격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다. 내 대적자는 글자 그대로 사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를 섬기려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대적자가 그들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움직임을 항상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금하려는 간계 뒤엔 누가 숨어있는지 항상 알 것이다.

내 깃발 아래 많은 거짓 선지자 들이 나타나 내 말과 바로 앞에 닥친 종말에 대한 내 암시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보다 거짓 선지자를 믿고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항상 밝은 미래를 향해 간다고 희망하게 할 것이고 다가오는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희망하게 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희망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희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것을 항상 또 다시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너희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잘 준비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 가운데 처함을 의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옳고 의롭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그가 위험에 빠지면, 예수 안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위험이 없이 종말의 때에 살아남고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새 땅의 낙원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체험을 할 것이다. 그의 믿음은 실제로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면 종말이 그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편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견딜 것이고 내가 약속한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내 대적자는 분노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이를 알고 속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적자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추종자들은 대적자의 의지를 따라 사람들 사이에 내 위로부터 직접 알려준 내 말과 즉 너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내 복음과 반대되는 오류를 퍼뜨리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쪽에서 어떤 것을 제공받았을 때 너희는 단지 이것이 내 말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왜냐면 내 말과 반대되는 것은 내 대적자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가까이 임한 종말을 부정하면서 너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선자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거부할 수 있다. 너희는 종말 직전에 있다. 너희는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 너희는 종말을 잘 대비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계시된 종말의 시간이 오고 그러면 새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시작 된다. 그러나 이런 삶은 단지 나를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면 끝까지 견디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새 땅의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나에게 인도하는 즉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길을 찾아서 갈 것이다. 여러 교파의 교리에 따라서 내적인 희생을 하며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영의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으면, 그들의 나와 내 나라를 위한 설교로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적은 사람들이 각자 혼의 형성에 대해 진지하게 여길 것이며 나에게 대한 믿음이 내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갖게 해서 의도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권능 있는 설교자의 말을 들어도 무관심할 것이다. 거만한 미소로 많은 영들이 단지 무시해버릴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환타지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왜냐면 한 영혼을 타락에서 구한 것은 즉 다시 한번 지구의 창조물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주 큰 성공이다. 그래서 어떤 수고도 해야 한다. 왜냐면 어떤 영혼이든지 자기를 옳은 길로 인도한 구원자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설 것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쉽게 버리고 즉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많이 사라질수록 이 때문에 영적인 위기도 커진다. 영적인 위기가 결국 지구의 피조물들을 해체되게 한다. 왜냐면 더욱 더 깊은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는 내 대적자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다시 물질적인 창조물 안으로 파문함으로써 일어난다.

항상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선을 향한 영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고 지구 안에 지구 위에 있는 것들 중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땅이 생성되고 이 새로운 지구는 다시 법칙의 질서를 따라 시작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 다시 영들이 성장할 수 있게 다시 말해 질서를 따라서 귀환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은 이루어 질 것이다. 내 계시를 믿지 않으려는 이들은 내 계시의 첫 부분이 성취돼서 갑자기 닥칠 종말의 날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 모든 종말관련 계시의 성취를 증명할, 마지막 표적을 체험할 사람들도 놀랄 것이다. 지성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말의 계시를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직접 위에서 내려 보낸 내 말씀의 진리성을 의심할 것이다. 모든 권세를 받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위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특정한 예언의 계시를 해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확신을 가지고 영접해도 된다. 왜냐면 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과 지혜와 권능에서 너희에게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는 나에게 돌이킬 혼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계시를 통해 단지 얻고자 하는

것은 종말을 생각하며 너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너희 들은 종말을 부정하며 너희에게 선을 향해 변화되는 시간이 온다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자를 믿지 말라. 만약에 내 의지를 따라서 사는 다른 종류의 인류가 있으면, 이 땅에 영적인 전환은 올 것이다. 이 땅에 이런 인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영을 소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영의 소멸이 이 구원의 시대를 끝내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영들의 학교여야 하는데 물질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들은 다시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을 사모하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잊어버려서 다시 물질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인간들은 이루지 못하며 이 땅 자체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전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 땅이 어떤 영적 성장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땅에서 인간들의 영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이다. 이들에게는 내적인 조명이 부족하여 단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주장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 계시를 대적하는 영의 소리로 여기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종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조용호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 계시를 부정하는 잘못 된 주장으로 자신들의 부족한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피조물로 다시 돌아가는 무서운 새로운 파문에서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잘못 된 행실을 돌아보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야 할 나에게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은 잘못 된 가르침을 수정한다.

B.D. No. 8572

1963년 7월 28일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대신에 너희에게 가장 순수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단지 너희 편에서 진지하게 진리를 향한 소원과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생각하기 원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로부터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빛 가운데 산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향한 의지가 아주 적게 있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는 항상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오류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오류를 오류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지는 그 사람의 의지 자체가 결정적이게 된다. 내 손으로부터 가장 순수한 진리를 직접 받기 위해 그는 항상 나 자신에게 구해야 한다. 비록 그가 아직 나로부터 직접 말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순수한 진리를 향한 그의 소원과 의지를 깨달으면, 내 종을 통해 그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항상 다시 오류를 사이에 뿌려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내용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대적자는 항상 또 다시 가장 크게 주의를 해 오류를 막지 않는 곳을 중독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희가 자주 나 자신에게 진리를 구하여도 충분 하지 않다. 왜냐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가장 순수한 영적인 내용을 전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모든 더럽히는 첨가물로부터 자유로워서 너희의 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명수가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천에서 기르라.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수가 더럽혀지지 않게 주의하라. 원천으로부터 직접 얻은 상태와 다른 상태에서 너희에게 도달하지 않게 주의하라.

내 대적자는 내 순수한 말씀을 변경시키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가 변경을 하게 또는 그에게 이미 거짓 씨앗을 사이에 뿌릴 가능성을 주는 이 오류를 올바른 때에 깨닫고 제거하지 못하면, 이 싹이 자라 이제 가치를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소위 개선을 하게 시도하면, 조심하지 않고 그를 따른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내 말을 올리게 하는 일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게 남겨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가장 온전한 영적인 내용에 인간적인 첨가를 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잘못 된 생각과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항상 단지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에게 대적자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내가 직접 이 땅에 준 순수한 진리로 대항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의 진리에 대한 소원에 따라 각 사람은 진리에 대해 응답할 것이다. 그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그는 순수한 진리를 영접할 것이다. 또는 그는 무관심 한 가운데 잘못 된 사상에 고집스럽게 머무른 다면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흐리게 하는 것이 슬며시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항상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부터 직접 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내용에 변화를 주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의 생각을 항상 또 다시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내 대적자는 지배해 나로부터 발원되어 나온 영적인 내용에 오류가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진리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진리가 주어지게 돌보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나로부터 근원되어 나온 영적인 내용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유지가 되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직접 주어지는 내 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내가 말을 하는지를 나는 안다. 오류가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항상 다시 새로운 오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내 대적자로부터 온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항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오류를 나 자신이 해명해주기 위해 언제 다시 개입을 해야 할지를 나는 안다.

사람 스스로 깨어난 영으로 있으면 그는 항상 오류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아직 오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류를 허용할 것이다. 오류는 더러워진 우물과 같다. 이 우물의 물은 더 이상 쾌활하게 해주지 못하고 더 위험 할 수 있다. 오류는 대적자로부터 나오고 절대로 혼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원천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으면 너희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말이 모든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에게 가장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나로부터 진실로 어떤 오류도 너희에게 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내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함을 항상 알아야 한다. 만약에 그가 단지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게 하는데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 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그는 스스로 어두움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체계로 역사한다. 단지 항상 나 자신에게 밝은 깨달음과 해명해 주기를 구하면 나는 그들에게 이를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서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진리만이 빛이고 단지 진리를 통해 너희가 축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